# 6번째 우승 도전 장동민 "서바이벌 은퇴는 없죠"

##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3' 출연… 하석진·홍진호 등 경쟁
## 역대 시즌 최다 인원… "출연진 라인업 스타워즈 같아"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3'에 출연하는 장동민. 연합뉴스

"국내는 좁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장동민의 존재를 알리고 싶습니다."

서바이벌 예능에서만 5회 우승하며 '서바이벌의 신'이라 불리는 개그맨 장동민이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데드 어게인'(이하 '데블스 플랜3')으로 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장동민은 5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데블스 플랜3' 제작발표회에서 "드디어 악마의 계획(데블스 플랜)에 악마가 초대됐다"며 "더 재미있고 즐겁게 모든 것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서바이벌 우승 경력에도 또다시 출연을 선택한 그는 "도전을 멈추는 순간, 이 삶이 다한 게 아닌가"라며 "제가 살아있는 한 서바이벌 은퇴는 없다"고 단언했다.

'데블스 플랜3'는 두뇌·심리전으로 최고의 '브레인'을 가리는 두뇌 서바이벌 예능이다.

시즌1·2 우승자인 배우 하석진과 서울대 출신 인플루언서 정현규를 비롯해 장동민, 프로게이머 출신 포커 플레이어 홍진호 등 시즌 최다 인원인 16인이 모여 두뇌 최강자를 가린다.

장동민은 출연진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그는 "(출연에) 고민이 많았지만 이렇게 잔치가 크게 벌어졌는데 시원하게 놀아봐야죠"라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16인의 출연진을 두고는 '스타워즈'(Star Wars)에 비유했다. 그는 "라인업 보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정도로 모아놨나' 싶어 흥분이 멈추지 않았다"며 "모든 걸 불사르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한 멤버들에게 감사했다"고 말했다.

장동민은 우승 후보다운 플레이를 예고했다. 그는 "저는 견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강해진다는 걸 많은 분이 몰랐을 것"이라며 "가장 견제가 심했지만, 가장 강력한 장동민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출을 맡은 정종연 PD는 "장동민은 워낙 압도적 플레이어다. 미국 프로농구(NBA)라면 마이클 조던을 모신 것"이라며 "시청자가 제일 기대하는 출연자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시즌1·2 우승자인 하석진, 정현규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하석진은 집 앞까지 찾아온 제작진의 끈질긴 섭외로 출연을 결심했다며 "각종 연애 프로그램의 인기 남녀만 싹 모아둔 느낌이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킹카 퀸카'만 모인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현규는 시즌2 우승에도 게임 과정에서 보여준 공격적인 태도로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우승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어리숙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플레이했다. 많은 분께 피해를 끼친 점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숙한 자세로 부족함을 보완해 이번 시즌에서 한 번 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데블스 플랜3'는 보유한 피스(점수)를 잃으면 곧장 퇴장한 시즌 1·2와 달리 게임으로만 플레이어들의 탈락을 결정해 순수한 두뇌 경쟁의 재미에 더욱 집중한다.

또한 출연진이 연합하거나 대립하는 '생활동'과 '감옥동'의 이동이 쉽지 않아 출연진 간 불균형이 생겼다는 지난 시즌의 지적을 받아들여 규칙도 촘촘하게 보완했다.

올해만 다섯 번째 서바이벌에 출연하는 래퍼 서출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듯 게임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깊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IT 개발 프로젝트매니저(PM) 정원영은 "두뇌 서바이벌계 마스터피스인 '데블스 플랜3'가 변화하는 순간을 같이 해 영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재일동포 3세의 투쟁 담은 '호루몽'

## 이일하 감독 신작 11일 개봉
## 신숙옥과 3대 여성 역사 조명



영화 '호루몽' 포스터. 엣나인필름·익스포스필름 제공

"산다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찬가입니다."

재일 동포 3세 인권운동가 신숙옥의 신념이 담긴 말이다. 그의 삶을 통해 재일동포 100년의 역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호루몽'이 11일 개봉한다.

이일하 감독의 신작으로, 신숙옥이 일본 방송 제작사를 상대로 벌인 법정 투쟁과 외할머니 이백란, 어머니 케이코로 이어지는 3대 여성의 역사를 교차해 보여준다.

영화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공장으로 보내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이백란과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은 케이코, 인권운동가로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온 신숙옥의 삶을 따라간다.

일본 사회의 차별과 배제가 가족 내부의 가부장적 억압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들여다보며, 고통과 저항의 역사를 조명한다.

제목인 '호루몽'은 일본어로 곱창 등 내장 부위를 뜻한다. 과거 버려지던 내장을 먹거나 팔아 생계를 이어간 생존 역사를 상징한다.

신숙옥은 배급사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호루몽은) 재일 코리안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며 "'몽'은 '꿈'이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꿈을 버리지 말라는 역설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클라쓰' 태국판(왼쪽)과 '더 스푸키 러브 테일' 포스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 '이태원 클라쓰' 태국판… '설공찬전'도 드라마 제작

웹툰 '이태원 클라쓰'와 '설공찬전'이 태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GMMTV(지엠엠티비)가 3일 열린 행사 '지엠엠티비넥스트: 제너레이션 해피'(GMMTVNEXT: GENERATION HAPPY)에서 두 작품의 드라마 제작 계획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태원 클라쓰'는 '이태원 클라쓰 타이 에디션'(ITAEWON CLASS THAI EDITION·가제)으로 리메이크된다. 연합뉴스



영화 '거짓말' 재개봉 포스터. 신씨네·영화로운형제 제공

# 장선우 감독 '거짓말' 27년 만에 재개봉

개봉 당시 외설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1999)이 27년 만에 무삭제 완전판으로 국내 관객을 만난다.

5일 배급사 영화로운형제에 따르면 '거짓말: 4K 무삭제 완전판'이 오는 11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거짓말'은 장정일 작가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38세 조각가 제이(이상현 분)와 18세 여고생 와이(김태연)의 파격적인 사랑과 욕망을 그렸다.

1999년 제56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같은 해 바티칸 교황청이 영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국내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끝에 일부 장면을 삭제한 판본으로 2000년 극장에 걸렸다.

개봉 이후에도 시민단체가 상영 극장을 고발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외설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원작 소설 역시 출간 당시 외설 논란에 휩싸였다. 장정일 작가는 1997년 음란문서 제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항소심을 거쳐 2000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에 개봉하는 '거짓말: 4K 무삭제 완전판'은 한국영상자료원이 4K로 복원한 영상을 바탕으로 해외 배급 판본을 활용해 완성했다.

2000년 국내 개봉 당시 삭제됐던 장면을 포함한 112분 분량으로, 무삭제 완전판이 국내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